

## 협회 회장단, 대통령 주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 참석



▲ 노무현 대통령이 협회 신원호 부회장에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로로 산업포장을 수여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가 열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은 확대되고 지속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신기술인증 제품 구매에 대한 대기업의 관심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 확대 ▲대·중소기업 간 공동 해외마케팅 등 상생협력의 과제들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 조현정 회장은 “최근 6개월 동안 성적이 많았다고 느끼며 상생협력이 지속되기 위해 대기업의 협조를 바란다”며 “중소·벤처기업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어떤 정부지원이 있는지 모르고 있고 정부부처마다 업무도 나뉘어져 있다. 중기특위가 만든 맞춤형 정보시스템이 효율적일 것 같다. 협회에서 많이 공부해서 기업들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수석부회장은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가 정부가 상생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한전 등 공기업도 적극적으로 그보다 일반 대기업에 더 확산돼야 한다. 중기특위가 만든 맞춤형 정책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난해 연초부터 청와대 청와대 정책실 등에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 9월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한 달 만에 나와서 놀랐다. 포털에 각 부처의 살아있는

정보가 리얼타임으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그때 살아있는 정책을 올려야 중소기업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강신호 회장은 “대·중소기업은 동반자이며, 경제의 양 수레바퀴다. 한마음으로 내년에도 열매를 맺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그간의 상생협력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한 사례를 공유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태화일렉트론 대표인 협회 신원호 부회장이 올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로자로 선정돼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 조현정 회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벤처기업협회’ 주제발표



협회 조현정 회장은 지난달 27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제49회 벤처포럼에 연사로 참석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벤처기업협회’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포럼은 한국 벤처산업 10년을 기념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10년’을 주제로 전자신문사와 벤처포럼운영위원회가 개최한 것이다. 조회장 외에 한국표준협회 이계형 회장이 ‘1999~2000 당시 벤처산업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청 정영태 창업벤처국장이 ‘2005 벤처 활성화 정책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다.

조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협회 설립, 벤처인프라 구축, IMF와 벤처의 약진, 벤처의 시련기 등 지난 10년간의 벤처산업 성장과정을 설명하고 “국가 GNP의 20% 달성, 한국 GNP 성장률의 50% 기여,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 선순환 발전을 위한 공헌문화 확산을 2015년 벤처 4대목표로 정해 본격적인 ‘벤처확산’ 시대로 나가겠다”고 말했다.